

# 곡성군 자체 생산 퇴비 구례·순천까지 입소문

### 2012년부터 연간 80만포 생산 가축분 2만포 타 지역 제공키로 “좋은 제품으로 공급 범위 확대”

곡성군이 직접 생산해 농가에 보급하는 ‘퇴비 사업’이 인근 지역인 구례와 순천까지 확대된다. 곡성군은 지역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이용해 생산된 퇴비 2만포를 구례와 순천지역 농가에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2년 부산물자원화센터를 신축하고 전국 최초로 퇴비를 생산하고 있다. 연간 가축분 퇴비 80만포(1만6000t)를 생산해 지역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지역 농산물의 특성에 맞는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 한국표준분석연구원에게 맡겨 분기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축분 84%, 톱밥 8%, 왕겨 2%, 버섯배지 6%를 혼합해 1등급 가축분 퇴비를

만들고 있다.

군은 지난해 센터에서 생산한 퇴비 58만포를 지역 농가에 공급했다. 지난 2018년 47만포를 공급한 것에 비해 23%가 증가한 것으로 환경 보호에도 기여했다.

올해는 곡성군 농가가 신청한 퇴비 88만2000포 중 57만2000포가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로 집계됐다.

군은 농가의 일손을 덜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는 퇴비를 농작업 현장까지 운송한 뒤 살포까지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질 좋은 퇴비 생산을 위해 5억원을 들여 노후된 교반기를 교체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자자체가 직접 퇴비를 생산하기 때문에 품질을 믿을 수 있어 타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공급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곡성군은 연간 가축분 퇴비 80만포(1만6000t)를 생산해 지역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지원 받은 퇴비를 이용해 밭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 <곡성군 제공>

## 섬진강 기차마을서 황금기차를 찾아라

### 곡성군, 오늘부터 입장객 이벤트

곡성군이 13일부터 11월12일까지 2개월 동안 섬진강기차마을을 방문한 입장객을 대상으로 ‘황금기차를 찾아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하면 상품을 지급하는 이번 이벤트는 기차마을 곳곳에 숨겨진(6개소) 황금 기

차를 찾아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업로드하면 된다.

또 섬진강기차마을 공식 SNS 계정 3개 중 2개 이상에 ‘팔로우·좋아요·구독’을 누른 뒤 직원에게 확인을 받으면 상품을 지급한다.

이벤트는 한 가구당 1회씩 수행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 고흥 가두리 양식장 ‘고수온 피해’ 45억 달해

### 102어가 전복 등 305만마리 폐사 군, 장비 지원 등 대책 마련 나서

고흥군이 올여름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발생한 고수온으로 45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 해역은 지난 7월 15일부터 득랑만 고수온 주의보 첫 발령을 시작으로 7월 29일 고수온 경보로 확대 발령됐으며 지난달 26일에는 특보가 해제됐다.

한 달 가량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고흥 해역의 수온은 27도까지 치솟아 전복과 굴 등 양식 어류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고흥군 조사 결과 102어가에서 전복과 도다리 등 어류 304만8천마리가 폐사하고 굴과 가리비 385줄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고수온에 따른 재산 피해만도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흥군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남해수산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원인 분석을 의뢰했다.

피해가 잇따르자 송귀군 군수는 최근 금산면의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고흥군은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비 1억



송귀군(가운데) 고흥군수가 금산면의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고흥군 제공>

3200만원을 투입해 액화산소공급기와 저층해수 공급장치, 차광막 등을 지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수출 주요 품목인 개체굴 양식 재난복구기준이 현재 없어 전남도와 해양수산

부에 복구계획 추가 품종을 건의했다”며 “기포 발생기 구입 등 고수온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 사업비 4억원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 7년 연속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고품질 매실 생산·유통 행정 지원 결실

광양시의 대표농산물인 ‘빛그린 광양매실’이 지역특산물 부분에서 7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은 한국리서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 기초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해 1차 대표브랜드를 선정하고, 브랜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시는 고품질 매실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방치 매실과원 정비, 정지·전정 인력 지원 및 동력전정기위 보급, 공동선별시설 등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지원했다.

광양매실의 소비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

를 위해 코로나 추세에 맞춰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홈쇼핑, 랜선장터, 라이브커머스 등 전략적인 홍보·마케팅도 추진했다.

TV 프로그램과 CF 등을 제작 방영해 광양매실의 명성과 유용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등 국내의 매실 소비 저변 확대에도 힘썼다.

김경호 광양시 부시장은 “빛그린 광양매실이 올해 7년 연속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명품’ 광양매실의 생산과 유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여수시,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 ‘총력’

### 22곳에 무인단속장비 설치...17곳에 노란신호등

여수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수시는 올해 국비 확보 등 14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교통신호기를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 26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32대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에도 국비 포함 약 7억원을 들여 22개소에 22대를 확대 설치 완료해 총 54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저속 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큰 노란신호등과 횡단 보도 투광기를 약 7억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17개

소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만큼은 안심하고 다닐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운전자들의 규정 속도와 신호 준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인상돼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을 부과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